

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출판계 현대화산업 한창-단지조성·유통개선·편집대행·상품권제 / '일산' 이어 근교에 인쇄·유통단지도 추진 / 국제도서전 올안 서울유치 계획 등 분주(한겨레신문 1월25일 신연숙기자)
- "10대, 10권 중 7권 외설물 산다"-시내 가관점 조사 52%는 20대에 팔려(한겨레신문 1월25일)
- "책 한권 못내는 출판사는다" / 전체 52%...해마다 크게 증가 / 대형社 전망의 65% 집중심각 / 1권만 펴낸 곳도 609개나(매일경제신문 1월29일 李奉濤기자)
- 저작권중개업체, 개점휴업 3년째 / 출판계 '해적판시대' 인식 그대로 필요 못느껴 / 외국서도 아직 불신 "차라리 잘 아는 개인 통해 계약" / IPS 등 몇곳 빼면 30여곳은 홀로서기 '불능'(스포츠서울 1월29일 류창하기자)
- 책 장정·제목 닳은 꼴 많다 / 베스트셀러 인기 편승노력 모방 / 안팔리는 책 제목바꿔 재출판도(중앙경제신문 1월29일 金龍善기자)
- 서적상조합연합회장 金奭鏞씨-인터뷰 / "유통질서 개선...회원권보호"(중앙경제신문 1월29일)
- '외화내빈'에 그린 서점대형화 / 과감한 투자·전문경영관리 도입 절실 / 1천평 이상 전국에 3곳...백화점식 전열로 특색있어(국민일보 1월29일 朴太堅기자)
- "베스트셀러를 벗긴다" / 인기 뒤의 허상 전면비판 5인평론집 눈길 / 이문열·마광수·김우중씨 등 '의식' 파헤쳐(국민일보 1월29일)
- "중국다문 학술서적 쏟아져 나온다"-유럽·蘇학자 시각 수용 다양화 / 동일문화권 인식·해금 등 힘입어 활기 / 「중한사전」 「강좌국사」 등은 세계적 수준(중앙일보 1월29일 鄭橋溶기자)
- 도서유통개선협의회회장 李鎬林씨-인터뷰 / "도서상품권제 정착에 최선을 다할것"(중앙일보 1월29일)
- "청소년도서 다양해진다" / 철

- 학·과학 등 영역 넓혀 / '팔리는책 만들기' 탈피 정서향상 도움(동아일보 1월30일 梁泳彩기자)
- 언어의 권력도구화에 반발-작가정찬, 고원정씨 등 소설내 / 「수리부엉이」 「갈 한자루의 사상」(한겨레신문 1월30일 조선희기자)
- 社內문에 단행본 발간 잇달아 / 노사간 문화동질성 확보 차원 / 시대상황·삶의 애환 그린 수준작 많아(중앙경제신문 1월30일 朴海鉉기자)
- "원로문인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..." / 노령·지병에도 끝없는 창작욕 과시 / 노년의 관조속에 대표작 모아 전집·선집 출간도(세계일보 1월30일 梁憲錫기자)
- 창작소설 발간 러시-올들어 장편 20여권 쏟아져 / 임철우·이원규씨 등 대부분 80년대 등단작가 / 「시의 시대」 마감...「소설의 시대」 열릴길 기대(서울신문 1월31일)
- 청소년층 겨냥 '건전한 읽을 거리' 출판 붐 / 새해들어 철학·과학 분야 등 잇달아 출간 / 역사인식·현실비판력 길러주는 서적 기획도(국민일보 1월31일 朴太堅기자)
- "독자, 뛰는 책값 부담 크다"-학술서적 영화관람료 2배 / 광고비·임금상승에 로열티도 한몫 / 출판계 다각적 원가절감 노력 절실(내외경제신문 1월31일 南眞祐기자)
- 작가내면 드러낸 수상집 인기 / 「작가일기」 「괴로운 사람은...」 등 시대적 갈등·사랑 토로(내외경제신문 1월31일)
- 현실 꼬집는 「만화작」 창간-「바른만화연구회」 1년여 작업 열매 / 만화가 30명 모여 무크 내 / 상업주의 풍토 벗고 형식·내용도 다양화(한겨레신문 2월1일 신연숙기자)
- "일제의 한반도 도시계획, 대륙침략·식민통치 방편" / 孫禎陸교수, 「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」 출간 / 「京城관청 1길로내 밀집 「폭도」 방어 목적」(조선일보 2월1일 金泰翼기자)
- 정초 서평가 소설책 강세 / 고원정 「갈 한자루의 사상」 등 10권 선뵈 / 다양한 주제로 현실문제 밀도있게(매일경제신문 2월1일 李奉濤기자)
- 도서유통, "지역별 도매기구설립 바람직"-全元在교수, 87개 관련업체 설문조사 / 12개 도시에 19개 대형점 필요 / 도소매·출판사 공동출자...상호이익 보완 /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등 도입 서둘러야(중앙

- 경제신문 2월2일 金龍善기자)
- 입문용 리얼리즘 창작기법 제시-젊은 문인들 「소설창작 길잡이」 공동출간 / 사회계층간 문제 형상화한 작품 예시 / 민족문학 성과에 고전적인 작법 배합(한겨레신문 2월2일 조선희기자)
- "고유도시美 일제가 파괴"-「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」 펴낸 孫禎陸씨 / 「格子型」은 유럽보다 앞서...점증 못해 아쉬움(경향신문 2월3일 安健憐기자)
- 기초학문 출판의 큰 획-대우학술총서 150권째 곧 출간 / 저자 2백여명...심사인원만 1천명(조선일보 2월3일)
-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선거제 개선편 / 총회직선 전형위원회에서 선출 / 6명이 후보자 지지...위임확실시 / 요식절차만 남아... 단행본업체인 반발(조선일보 2월3일 崔球植기자)
- "독서수준 넓고 두터워졌다" / 「마음의 생태학」 「한국사상의 등기세」 / 딱딱한 내용 전문서적 인기 꾸준 / 저명인사 자전소설 경쟁 세양상(조선일보 2월3일 崔球植기자)
- 전국에 산재한 성곽·봉수대 1791곳 일목요연하게 정리-보이스카우트연맹, 「한국의 성곽과 봉수」 발간 / 측정방법·유물·관련전설 등 집대성 / 대구·인천 등서 405곳 새로 발굴(세계일보 2월4일 李仲洙기자)
- 공공도서관 행정업무, 문교·문화부 줄다리기 / 출판문화협회 등서 조속한 移管촉구 결의 / 문교부선발전방안 제시, 계속 관장 움직임(세계일보 2월4일 申敏亨기자)
-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사 재조명-한길사, 「강좌 한국사」 간행 계획...학계 관심 / 진보사관입장서 개항 이후사에 중점 / 내년 7월 목표...전 12권 집필인원 130여명(중앙일보 2월5일 鄭橋溶기자)
- 젊은날 佛家체험 소설집으로-두 환속작가 김성중·황충상 각각 펴내 / 「그리운 등불 하나」 「빠있는 여자」(한국일보 2월7일 朴來富기자)
- 불량도서 73%, "日 음란서적 표절"-간행물윤리위원회, 가관점대상 조사결과 / 성행위 묘사·외설적 삽화가 대부분 / 청소년 정서 저해...지속적 단속 시급(서울신문 2월7일)
- 성곽·봉수대 자료집 출간 / 축조방식·전설 등 처음으로 총괄정리

- (한국경제신문 2월7일)
- 具常씨의 시집, 영·미문단에 등장-서강대 티그교수 번역본 동시출간 / 40년간의 시작서 뽑은 1백여편 선보여 / "하느님이 자리한 느낌" 순수성 높이 평가(서울신문 2월7일 任英淑기자)
- 뿌리내리는 소비자 정보지 / 알뜰구매가이드·불량품고발 등 권익대변역(경향신문 2월7일 李演宰기자)
- 마약 주제 소설 러시 / 좌절·허무 현대인의 파멸 「경종」 「자유종」 「낙타는...」 「백색의 공포」 「가자미」 등 잇달아(일간스포츠 2월7일 金炳勳기자)
- 작가내면 담은 산문집 출간 러시 / 창작과정·일상 등 진솔하게 표현 / 박두진·김원일 등 원로·중진들 줄이어 펴내(중앙경제신문 2월7일)
- "독립운동대사전 나왔다"-李康勳 20년 집념 결실 / 인물·사건 2천여건 항목별 분류 / 33인중 변절자 제외시켜(조선일보 2월8일 朴斗植기자)
- 지방문화원 출판사업 붐-출판학회 20주년 기념호 논문에서 조사 / 전국 165개중 80여곳 문화·소식지 발간 / 「향토사·민속연구의 보고」...지역인문역할도(세계일보 2월8일 申敏亨기자)
- 50년 농지개혁 긍정적 조명-金聖昊씨, 「농지개혁사연구」 출간 화제 / 「한국자본주의 출범 계기됐다」 / 토지제도흐름 속 성격구명(한국경제신문 2월9일 李汀桓기자)
- '도서관행정 이관' 반대서명 관장강요에 직원들 큰 반발 / 「협박·회유」 폭로...법개정 저지 로비설도(한겨레신문 2월9일 신연숙기자)
- 「농지개혁사연구」 출간 / 학계 등의 연구 5년에 걸쳐 집대성 / 조선조 이후 변천사 실증적 기술(세계일보 2월9일 李仲洙기자)
- 李康勳, 「독립운동대사전」 출간 / 20년 집념 결실...두 권으로 묶어 / 인물·사건자료 2천여건 정리(한국일보 2월10일)
- 출판회장 연임된 權炳臺씨-인터뷰 / 「출판산업구조의 선진화추진」 / POS 제 도입...9월에 국제도서전(한국일보 2월10일)
- 토지개혁사 관·학 공동연구 열매-농촌경제연구원 7년만에 출간 / 조선시대 제도·해방뒤 40년 문제 들춰 / 농지개혁 과정 자료 토대로 재구성 돋보여(한겨레신문 2월10일 金영철기자)

- 목은 책 "신간 재포장" 성행-제목 바꾸고 표지 다르게... "신중해적판" / 저자 승낙없이 멋대로...독자들 큰 혼란 / 원고기근 여파...수필·번역물 등 인기작 많아(경향신문 2월10일 安健憐기자)
- 북한의 언어현설 한눈에-분단 45년...「어학자료총서」 출간 / 엄청난 이질화...「바로알기」 시도 / 여과없는 대중노출 지적 혼돈 우려도(일간스포츠 2월11일 李健기자)
- 15만자 국내 최대 영한사전 편찬-연대 외대 李宇柱교수 / "정년후 마지막 봉사 각오로 집필 / 외래어 우리말로 쉽게 쓰려 노력"(조선일보 2월11일)
- "서툰 솜씨 노사가 즐겁다"-직장단위 아마추어 작품집 출판 붐 / 글·사진·그림 등 취미·재능 살려 직장에 활력 / 사원 친목도모에 가족들로 '한목소리' 참여(스포츠서울 2월12일 류창하기자)
- 중편소설, 사실주의 흐름 타고 뿌리내려 작품집 잇단 출간...독립장르로 / 장편 포용력·단편 긴장감 고루 갖춰 호응(한겨레신문 2월13일 조선희기자)
- 목은 책 번역출판 러시 / 학계 불황심화·군소업자난립 등 엇물려 / 대부분 저작권과 무관한 것...질저하 우려(국민일보 2월12일 權赫鍾기자)
- 북한관련 총서 출간 늘어-문예진흥원·방송광고공사 등 공공기관 지원 / 「북한의 인식」 「북한문화예술의 이해」 등 곧 완간 / 이념 떠나 정치·문화 등 객관적인 접근 / 「북한실상 이해의 길잡이」 긍정평가(중앙일보 2월12일 鄭橋溶기자)
-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에 재선된 權炳臺씨-인터뷰 / 「정보화사회 대응한 출판체제 시급」(중앙일보 2월12일)
- 젊은 작가들 소설 출간 러시-90년대는 소설의 시대인가 / 활발한 집필...올들어 벌써 10여권 나와 / 시대상을 다양한 주제·소재로 내면화(세계일보 2월13일 梁憲錫기자)
- 국내 최대규모 미술전집 「한국근대화전집」 출간-금성출판사서 10억 들어 6년만에 총27권 완성 / 한국화·서양화 각28명씩 선정 집중 조명 / 월북화가 12명의 작품·작가론도 정리(중앙일보 2월13일 李昌雨기자)